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익산불교신도聯,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연탄' 전달

다가올 겨울에 난방비 적정으로 한숨만 내쉬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산불자들이 연탄을 통해 자비를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익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1일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 가정 등 불우이웃에게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행사에서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백운사 주지)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 60여 명은 이날 54가구에 1만8000장의 연탄(700만 원 상당)을 직접 각 가정에 배달했다.

우성 스님은 "지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하나되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흐뭇하다"며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보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왼쪽)이 자비의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중근 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

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름다운 사찰 이어나가자”

10일, 남원 실상사 불사십조 선언식 개최

불사(佛事)에 불교계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담아 사찰 고유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가 10월 10일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0가지 불사의 실천덕목을 담은 '실상사 선언 - 불사십조'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된 불사십조(佛事十條)는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공체제를 살리는 불사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교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이다.

실상사는 지난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도량불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10월 10일 실상사 불사십조 선포식후 문화행사가 열렸다.

교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등 불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왔다.

불사십조는 도량불사 세미나에서 축적된 대안들을 정기용 건축가의 제안으로 제정하게 됐다.

선포식은 남원시 산내면사무소에서 실상사에 이르는 길을 따라 진행된 길놀이로 시작했다. 향우 실상사 불사에 사용될 나무를 용재림(用材林)으로 정하고 고하는 의식과 지리산 천왕봉쪽 농로에서 보광전 앞까지 이어지는 기원춤 의식이 펼쳐졌다.

한편, 실상사 불사십조 선언에는 불교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마을 주민 등 각계 각처에서 1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10~11일 음악회·풍물장터도 열려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간 대중들이 다시 금산사에 모였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10월 10~11일 '앉아봐라 꽃밭이다'를 주제로 제3회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외국인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경내 곳곳에 전시된 템플스테이 사진과 다양한 한지 등이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사찰음식의 시연과 시식이 이어졌다. 또, 동남풍의 사물놀이 비나리 공연, 대금연주가 이창선 씨의 연주와 현대악기와 어우러진 퓨전국악, 판소리, 비보이 공연, 꽃반지 끼고의 가수 은희 씨의 공연으로 절정을 이뤘다.

이날 김제 스님이 진행하는 산사토크와 주지스님의 법문, 숲



10월 10~11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추억의 템플스테이 모습.

속명상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한가지씩

갖고와 판매하는 풍물장터가 열려 많은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가을 산사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씩 모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힘이 되어 주는 장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자들의 첫 출가의식 열려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제식

태고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행자들의 첫 출가의식이 열렸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13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에서 '제34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제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태고종 재정위원장 화경 스님, 경담 스님, 상명 스님(선암사 선원장), 수진 스님(담양 용화수 주지)을 비롯해 노원규 순천시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식, 입명장 수여, 행자선서, 환영사, 치사, 축사, 교수·습사의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회경 스님은 치사를 통해 "출가하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모습.

는 120명 행자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종단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불법을 배우는 과정인 신·해·행·증의 과정을 잘 배우고

뒤야, 올바른 수행자의 길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마음 속의 무진번뇌를 극복하고 부지런히 정진해 인연의 스승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가한 120명의 행자는 30일까지 매일 조석예불을 비롯한 불교예절 습의와 교리, 종단역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사찰탐방, 1보 1배 등을 공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무등산 증심사

오백나한 대제 개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은) 10월 10일 오백전에서 '기축년 오백나한 대제'의 회향과 문화행사를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9월 19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된 '오백나한 대제 회향식'에는 부처님과 10대제자, 16성중, 오백나한 전에 여섯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전통불교영산회 스님들의 오백나한 불공과 기도, 범패와 축원이 이어졌다.

지장 스님은 "마음이든 물건이든 비우면 그 비운만큼 다시 채워진다"며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진행된 문화공연에는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의 판소리와 국악, 타악연주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오백전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정토회 광주법당 총무 임지영

“부처님 만난 것 너무 행복해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수년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활동, 인도 동계소외, 필리핀 민다나오 등에서 교육과 주민환경개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세계로 뻗치는 법륜 스님의 천수 천안 자비의 손길을 믿고 있는 광주에도 드리우는 이가 있다. 바로 임지영 정토회 광주법당 총무(사진)다.



고 다시 정리하면, 오후 4시. 그리고 다시 집으로. 하루하루 바쁘고 고강된 일과의 연속이지만 임 총무는 부처님 일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임지영 총무의 불교인연은 등산을 하며 시작했다. "화순의 조그마한 선정암이라는 암자였어요. 산행 중 우연히 학담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불연(佛緣)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 임 총무는 호남불교대학에 다니며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포교사가 돼 포교활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 20대부터 고민하던 의문점은 항상 남아 있었다. 그런 그에게 법륜 스님의 책은 올바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큰 계기가 됐다. 연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 인간관이었다.

2002년 겨울, 정토회의 인도성지순례에 동참한 임 총무는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정토회에 입문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그녀의 활동은 맹렬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어느덧 정토행자가 돼 정토회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법당을 이끌고 있다.

광주법당은 이제 출발단계이지만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주말이면 회원들은 저마다 홍보물과 모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선다.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다. 임지영 총무는 광주에서 '열린아카데미'와 같은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있다. (062) 511-89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